Stage 3 - More Stories B
The Cold Day

Storytelling by Extended Stories

더 길고 자세한 이야기로, 더 높은 레벨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언어 노출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상상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페이지 마다 읽은 내용에 관한 사실과 의견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er/Introduction

This is a story about at cold day at the seaside when everyone went in the sea and felt cold, but Kipper felt coldest of all.

어느 추운 날 바닷가에 가서 모두들 추웠던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키퍼가 가장 추웠답니다.

Do you remember the story when Mum and Dad and the children stayed in an old bus that had been made into a holiday home? This story is about the second day of that holiday when they decided to go on the beach. The trouble was, the sun wasn't shining and there was a cool wind blowing, so it wasn't a very good day for swimming!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오래된 버스를 휴가 집으로 바꿔 지냈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이 이야기는 그 여행의 두 번째 날 바다에 가기로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는 안 뜨고 찬 바람도 불고, 수영을 하기에는 영 좋은 날씨가 아니었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1. What happens to us when we get really cold? 정말 추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나요?

2. When can you remember being really cold? 정말 추웠던 적은 언제였어요?

3. What's it like at first when you go for a swim and the water is very cold?

수영을 가서 물이 너무 차가우면 처음에 어떤가요?

Page 1

Kipper didn't want to spend the morning on the beach. He wanted to go into the nearest town and buy a fishing net so he could catch crabs in the rock pools.
"It's too cold for a day on the beach," he complained.
"Maybe the sun will come out later," said Dad cheerfully, "and even if it doesn't we can have lots of fun on the sand.
The first thing everyone wanted to do was to go for a swim. They all changed quickly and ran into the water. It was hard to go in, because the sea felt cold, but soon everyone went in except Kipper who stood on the edge.
In the end, Dad carried him in on his shoulders.
While **the children were in the sea,** some people walked by. "My goodness," said the lady, "they must be a tough sort of family. You wouldn't get me in the sea on a day like this!"

키퍼는 아침을 바닷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키퍼는 가까운 마을로 가서 돌 웅덩이에서 게를 잡을 수 있게 그물을 사고 싶었어요.

"바다에 가기에는 너무 추운 날이야."라고 불평했답니다.
"이따가 해가 나올 수도 있지 않니." 아빠가 기운을 북돋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나지 않더라도 모래사장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단다."
모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한 것은 수영이었습니다. 모두들 옷을 갈아입고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바닷물이 차가워서 들어가기 힘들었지만, 곧 물가에 서있는 키퍼를 빼고 모두들 들어가버리네요.
결국에 아빠는 키퍼를 어깨에 태우고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이들이 바다에서 노는 동안 사람들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나, 정말 대단한 가족이네. 나 같으면 이런 날에 바다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ow can you see that it's a cold day? 추운 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Talk about the story when the family stayed in an old bus.

키퍼네 가족들이 오래된 버스에서 지냈던 이야기에 대해 말해 보세요.

How does Kipper look? Why? 키퍼가 어떻게 보이나요? 왜 그런가요?

Page 2/3

"Brr! the water's cold!' called Biff. She and Wilf sat kicking their legs to see who could make the biggest splash.
Wilma and Chip thought of a good game. They got Mum to join in. **They played in the waves** that rolled in along the sand, and the idea of the game was to jump over each wave just before it broke and went all white and foamy. It was quite hard because the waves didn't all break in the same place. Sometimes they jumped too soon and landed in the white foamy bit.
Dad made them laugh. He found a funny shaped stick and some long crinkly seaweed. He put the seaweed on his head so that it looked like hair, and some of it he made into a long moustache. I am Neptune, King of the Sea," he said in a booming voice. "What are you lot doing jumping over my waves like that?"

"으으... 물이 차가워요!" 비프가 소리쳤습니다. 비프와 윌프는 누가 가장 물을 많이 튀게 하는지 보려고 발로 물을 찼어요.
윌마와 칩은 재미있는 게임을 생각해 냈어요. 엄마도 같이 하자고 했지요. 아이들은 모래밭에 밀려오는 파도와 놀았습니다. 파도가 오면 부서지고 하얗게 거품이 일기 전에 건너뛰는 것이었습니다. 파도가 모두 한 곳에서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었지요.
어쩔 때는 너무 빨리 뛰어서 하얗게 거품이 난 곳을 밟았습니다.
아빠는 모두를 재미있게 해주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나무와 길고 쪼글쪼글한 미역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머리 위에 올려서 머리카락 같이 보이게 하고, 나머지 미역으로 긴 수염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다의 신 넵튠이다."라고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파도 위를 뛰어다니며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is Kipper doing? How is he feeling? 키퍼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분이 어떨까요?

What is Kipper thinking? 키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Page 4/5

Everyone was cold when they came out of the sea**, but Kipper was very cold.** He was shivering and his

teeth were chattering. Mum gave him a good rub with a towel to try to warm him up.
"Oooh! Ouch!." said Kipper. "That towel is all rough. It's got sand in it. It feels like sandpaper."
"Sorry," said Mum, "but you must get dry."
"Get dry quickly everyone," said Dad. "Then get dressed. You'll soon warm up once you've put your clothes on."
"I will never feel warm again," moaned Kipper.

바다에서 나오자 모두들 추웠지만 키퍼는 아주 추웠습니다. 키퍼는 이까지 덜덜 떨고 있었지요. 엄마는 키퍼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지요.
"아야! 아파!" 키퍼가 말했습니다. "수건이 거칠거칠해. 모래가 들어갔나 봐. 사포같이 까칠해."
"미안해. 그래도 몸을 말려야지." 엄마가 말했어요.
"모두들 빨리 말리고 옷을 입어. 옷을 입으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을 것 같아." 키퍼가 불평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does it feel like to be dried with a towel that has sand in it?

모래가 있는 수건으로 몸을 닦는 기분은 어떨까요?

What's the best thing to do when you feel cold after a swim?

수영하고 난 다음에 추우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As soon as they were dressed, Wilf and Wilma began to run up and down the sand. "Come on, you two," Wilma called to Biff and Chip who were still struggling to put their trainers on.
"I can't get the sand out from between my toes," complained Chip. "It's horrible - all scratchy and rough."
Everyone wanted to jog - except Mum and Kipper. Mum wasn't changed because she had taken a long time to help Kipper.
Kipper sat on the rug wrapped in all the towels and beach wraps he could find. "If we'd gone to the rock pools, as I'd wanted, we'd all be happy," he thought.

옷을 갈아입자마자 윌프와 윌마는 모래사장에서 뛰어 놀기 시작했어요. "빨리 와 얘들아." 윌마가 신발을 신으려고 꾸물거리고 있는 비프와 칩을 불렀습니다.
"발가락 사이의 모래를 못 닦아내겠어. 굵히고 까칠하고 너무 싫어." 칩이 불평했지요.
엄마와 키퍼만 빼고 모두 조깅하고 싶어했습니다. 엄마는 키퍼를 도와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직 옷을 갈아입지 못했어요.
키퍼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수건과 담요를 싸고 돗자리 위에 앉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 싶었던 돌이 쌓인 곳에 갔으면 우리 모두 즐거웠을 텐데." 키퍼는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wasn't Kipper happy? 키퍼는 왜 기쁘지 않았나요?

What is a jog? Have you ever jogged? 조깅이 무엇이지요? 조깅을 해본 적이 있나요?

What is Kipper wrapped up in? 키퍼는 무엇을 몸에 싸고 있지요?

Page 8/9

"We'll run down to those rocks," called Dad, as everyone set off on the jog.
"Last one there is a slowcoach," said Wilf.
"Come on, Kipper," said Mum. "You'll be sorry if you don't join in the fun."
"I'm too cold," said Kipper. "Besides, I joined in the fun when I went in the sea, and now I'm freezing."
"Come on, Mum," called Chip. "You'll be left behind." "Coming," said Mum.

"저 돌들 아래쪽으로 뛰어내려가자." 모두가 뛰기 시작할 때 아빠가 말했습니다.
"제일 늦는 사람은 느림보다." 윌프가 말했습니다.
"키퍼야 이리 오렴." 엄마가 말했습니다. "같이 재미있게 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너무 추워요. 게다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끼었더니, 지금은 얼어 죽겠어요." 키퍼가 말했습니다.
"빨리요 엄마. 그러다가 뒤쳐져요." 칩이 말했습니다. "간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are Mum and Dad and the children wearing? 엄마 아빠와 아이들은 무엇을 입고 있나요?

Why are track suits good things to wear at the seaside?

왜 바닷가에서 운동복을 입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Page 10/11

After they had come back from the run, it was time for a game. Wilf had his baseball bat and Dad found three sticks which he stuck in the sand.
"This game is called American Cricket," announced Dad. "Whoever bats has to run round the picnic basket and back to the wicket whether he hits the ball or not. The fielders' job is to get him out."
Wilf went in to bat first. He was good at the game. **"Come on, Kipper," said Dad.** "We need you to help us field." **"I'm too cold," said Kipper,** still shivering on the rug.

다 뛰고 돌아와서 이제는 게임을 할 시간이네요. 윌프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왔고 아빠는 막대기 3개를 찾아서 모래에 꽂았습니다.
"이 게임은 아메리칸 크리켓이라는 게임이야. 타자는 공을 치든 못 치든 피크닉 바구니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와야 해. 수비수들은 타자를 아웃 시켜야 하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윌프가 제일 먼저 공을 치러 갔는데, 아주 잘 했어요. "이리와 키퍼. 수비하는 것을 도와줘." 아빠가 말했습니다. "너무 추워요," 키퍼는 아직도 돗자리에서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ow do you think the fielders can get people out? 수비수들이 어떻게 타자들을 아웃 시킬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everyone shouted at Dad? 아빠에게 무엇이라고 소리쳤을까요?

Does Wilf's bat look like a cricket bat? 윌프의 방망이가 크리켓 방망이 같나요?

Page 12/13

They played Dad's 'American Cricket' until everyone had been in and had a bat, but after that the children wanted to dig a hole in the sand.
"Let's dig an enormous hole and see what happens when the tide comes in," said Chip.
They enjoyed digging the hole and it got deeper. "This is brilliant," said Chip. "We can make steps down

to the bottom."
Kipper was still shivering on the rug. **"Come and help," said everyone. "I'm too cold," said Kipper.**

모두 한 번씩 공을 쳐볼 때까지 아메리칸 크리켓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모래를 파고 싶었어요.
"커다란 구멍을 파서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칩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구멍 파는 것이 재미있었고 구멍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말 재미있다." 칩이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계단을 만들 수도 있겠어."
키퍼는 아직도 떨고 있네요. "이리 와서 도와줘." 모두가 말했어요. "너무 추워요." 키퍼가 대답했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happened to Dad? 아빠는 어떻게 되었지요?

What would you like to dig or make on the sand? 모래사장에 무엇을 파거나 만들고 싶나요?

Page 14/15

Suddenly, some chimes rang out. A pink van had driven on to the sand.
"Ice-cream!" said Kipper. He ran to the van as fast as he could, scattering the rugs, towels and beach wraps all over the sand.
Dad watched Kipper in amazement, "I thought he was too cold to move." he laughed.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났어요. 핑크색 밴이 모래사장으로 왔어요.
"아이스크림이다!" 키퍼가 외쳤어요. 키퍼는 최대한 빨리 달려갔어요. 담요와 수건은 모래 위에 다 떨어뜨리고 말이에요.
아빠는 놀라서 키퍼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웃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sort of tune have you heard on an ice-cream van?

아이스크림 차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았나요?

What is Dad thinking?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Page 16

By the time the others reached the ice-cream van, Kipper had bought himself a gigantic ice-lolly.
Everyone looked at Kipper.
"We thought you were too cold even to move," said Mum. Kipper smiled, **"I'm not that cold," he said.**

다른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차로 달려갔을 때 키퍼는 벌써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키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네가 너무 추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키퍼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정도로 춥지는 않아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lolly has Kipper bought himself? 키퍼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샀나요?

Why has Kipper suddenly stopped being cold? 왜 키퍼는 갑자기 안 추워졌나요?